

'88년의 미국 농업계획과

87/88

국제 사료곡물 수급 및 원료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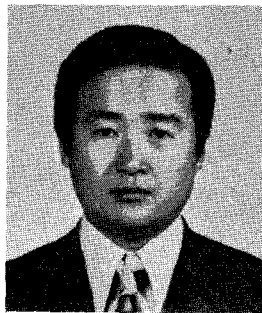
〈'88년 미국 농업계획 요점〉

농업법은 타겟·프라이스(목표가격)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론·레이트(융자가격)에 의해 미국산 곡물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년의 세계적 곡물수급완화(재고누중)에 따라 곡물의 시장가격은 융자가격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근접되면서 정부의 부족불은 증가하게 되고

- 농가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증대시켜 갔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곡물에 대한 생산조절을 실시하고, 정부의 재정적



김 동 수
옥성씨비스 상사 대표

자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1985년 농업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 그러나 정부의 보조정책에 의존하는 미국의 농업체질은 개선되지 않고, 재고수량을 감소시키는 일부 효과는 있었지만,

- '85년 제정된 농업법에서의 생산조절은 이미 한도를 넘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자 생산조절을 더욱 유효하게 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보다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88년 농업계획이 결정되었는바.

- 본래 농가는 정부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 시장동향, 작부 가능면적, 경작면적을 조정하여

- 소득이 높은 작물을 자유롭게 작부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하여

- 그 1단계로 '88년 농업계획이 책정되어 한도껏 되어있는 경작면적 감소율을 더욱 높여 생산조절을 추진해 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 '88 농업계획의 요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88 미국 농업계획이 국제 사료 곡물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

- 미국산 옥수수시세 전망 -

상기와 같은 미국의 경작면적 감소 정책에 의한 생산조정이 실시될 경우 미국의 사료곡물은 약 35%의 감산이 예상되고, 전세계적 사료곡물 수급은 전년대비 약 4.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사료원료중 옥수수는 거의 전량 미국에 의존하



는 한국의 경우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87/88 국제 사료곡물 수급 동향을 총괄적으로 본다면 생산은 7억 9,200만톤 정도인데 비해 소비는 8억2,000만톤 정도가 예상되고 4년 만에 소비가 생산을 상회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기말재고는 2억7,000만톤(재고율 25.2%)으로 여전히 고수준으로 재고면에서의 수급은 안정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향후 시세에 민감한 아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문제일 것임.

- 파종 및 성장기의 일기 여부

- 수확시의 일기와 단위당 수확량의 증·감 여부

- 최근 지역분쟁(전쟁)에 따른 곡물가 자극여파 여부

- 선임의 계속 상승과 파나마운하의 정상통행 여부

- 등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제 사료곡물 중 옥수수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볼때 현시세 C&F M/T 당 118\$ 대 보다 오를 전망을 99%로 예측하고 있으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88년 4/4분기경에 C&F M/T 당 125\$ 대 이상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월간양계 '88. 1월호 필자기고란 참조」

〈중공산 옥수수 예측〉

중공정부는 '88년에 소맥, 옥수수 등의 곡물생산 증대를 위하여 현재 까지 정부가 저렴한 공정가격으로 구매하던 정부의 곡물 구매량을 '87년의 약 반으로 줄일 방침을 천명하였는바 ('87 정부 구매량 9천만톤, '88 5천만톤) 이러한 조치는 정

부가 인구증가에 따른 곡물생산의 육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79년 이후 인민공사 해체 이후 고가로 판매되는 고소득 작물인 원면, 유채 등의 경제작물이 증산된 반면 가격 통제를 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곡물은 '84년을 피크로 매년 생산이 감소하고 있어, 곡물의 경우 정부수매가격보다 시중 거래가격이 30~50% 고가인 점을 감안 정부수매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고가 시중 거래 곡물 수량을 증가시켜 결국은 농민의 소득증대와 생산의욕 고취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조치가 '88년에 시행됨으로 '86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중공산 옥수수 수입이 거의 중단 상태에 있었으나 '8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파쇄 옥수수 수량이 약 15만톤 정도 구매되었는바 금번 중공정부의 곡물수매량 대

폭감소 조치에 따라 옥수수 등의 곡물 증산의욕으로 중공의 곡물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어 88. 4/4분기 이후에는 중공산 옥수수의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경쟁력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산과 비교할때 항해일수, 선적단위량이 적어도 가능한 장점 등이 있어 크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큰변수는 기상조건에 따른 생산량 증·감 문제일 것이다.

〈부원료 동향〉

○소맥피 수급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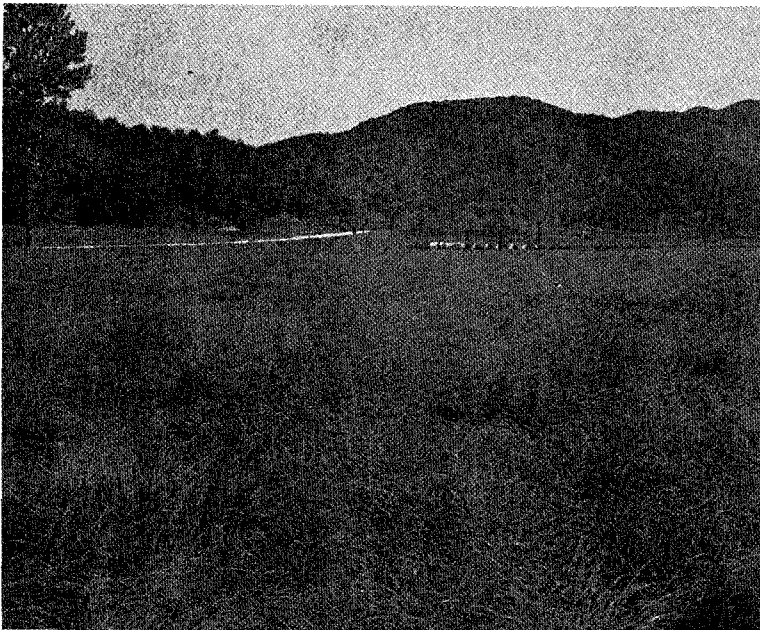
'86년말부터 국제 소맥피 시세가 M/T 당 20\$ 정도 양등되고 국산 소맥피 역시 kg 당 15원정도 인상되어, 도입곡류 시세보다 고가 또는 유사한 가격형성과 '88 정부의 사료수급 계획상 곡류사용 비율을 평균

4%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상대적 소맥피 사용비율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도입 항구마다 소맥피가 체화되는가 하면 국내 제분공장 역시 국산 소맥피가 체화되어 소맥피 수급사정은 예년에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체화현상에 따라 염가판매가 시작되어, 도입 소맥피 가격도 M/T 당 10\$ 정도 저렴한 시세로 형성되고 있어 '88. 3/4분기까지는 수급 및 가격면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만족할만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백질원료 사정

'87년말 이후 강세이던 국제대두 및 대두박 가격이 '88 1/4분기 말경에는 약세로 반전되다 미국 다음의 세계적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일기관계로 예측보다 200만톤 감소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는 가운데 강세로 반전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은 중공산 대두박에 의존도가 심한데 '88년초 C&F M/T 당 230\$대에서 215\$대까지 하락하다 최근 10\$이 양등된 225\$대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것을 감안한다면 국제 식물성단백질 원료가격은 상당히 강세로 지속될 공산이 커지고 있으며,

- 특히 지난 겨울의 강우 부족 탓인지는 몰라도 '88. 4월 들어 어분용 어획량의 감소 예상으로 국내 어분공장에서 생어의 구입가격이 인상되어 어분의 출고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속에 국내 어분가격은 상품기준 kg 당 440~450W(세별도)에서 400~410W대로 하락한 후 다시 강세로 반



전될 공산이 커지며, 국제 대두시세의 앙등에 따라 국내 대두박 제조업체의 경영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산 대두박 가격의 인상문제 또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때, 국내의 단백질 원료시세는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잠깐 생각해봅시다〉

민주화 이야기가 소위 6·29이후 꽤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민주화 등 민주화도 꽤나 많은가 보다 미국과 같이 민주화가 잘된 나라에서도 곡물이 과잉생산되어 재고가 누중되어, 결국은 정부의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어 농업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생산조절을 위하여 부득이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실행하는 모양이다.

축산은 불황인데 축산물 수입개방 문제 때문에 축산인을 더욱 슬프게 하는 작금의 분위기가 아닌가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도 단위당 경비의 절감을 통한 생산을 높이는 쪽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양계농가에서 시설의 근대화를 통한 제경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사육규모도 종전보다 100~200% 증가한 농장이 꽤나 많은 모양인데 대규모 사육농가와 부업규모 농장간에 같은 양계업을 하면서도 서로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것 같다. 대규모 농장에서 사육규모를 너무 확대해서 계란값이 오

르지 않는다는 논리와 부업규모 시설로는 생산원가가 높아 더 더욱 경영이 안된다는 이야기 등 그러면서도 생산조절을 위하여 사육규모를 감축하자는 의견에는 일치를 하면서도 실행은 무척이나 어려운 모양이다.

과잉생산에 따른 축산물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세재상 문제 때문에 적자가 크다는 등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생산조절도 실행하지 못하는

양축농가의 단합심도 문제점은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은 민주화 시대, 민주화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과 협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양축농가의 단합심만 발휘된다면 현재 국내 계란 가격을 회복시키고 축산물의 수입을 행동과 실력으로 거뜬히 막아내는 방법은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빨리 흥분하고, 너무빨리 체념하고, 너무빨리 변해버리는 풍조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양기**

최근 주요원료 구매결과

(단위 : C&F\$/M/T, 88년)

구매일	품명	원산지	구매자	공급자	수량	단가	선적기한	비고
3.23	옥수수	미 국	축협	미쓰이	50,000	117 ³²	7.26~8.14	
"	"	"	사협	카길	"	118 ²⁴	8.20~9.8	
4.8	"	중 공	축협	현대	10,000	107 ⁹⁰	5.7~5.22	파쇄옥수수
"	"	"	"	"	"	109 ⁹⁰	"	"
"	"	"	"	"	"	107 ⁹⁰	6.28~7.13	"
"	"	"	"	"	"	109 ⁹⁰	"	"
4.	"	"	개별	삼성	"	106 ⁹⁰	By 7월	"
3.18	소맥	EEC	개별	카길	50,000	111 ⁷⁵	6.10~6.30	
3.	"	"	"	"	"	110 ⁹⁰	6.10~7.10	
4.1	"	"	축협	"	"	111 ¹⁰	6.6~6.25	
"	"	"	"	럭키	"	111 ²⁰	7.26~8.15	
"	"	"	"	카길	8,000	110 ⁸⁰	6.10~6.30	
4.20	대두박	중 공	사협	선경	10,000	223 ⁴⁵	5.9~5.28	
"	"	"	"	"	"	224 ⁴⁵	5.25~6.13	
4.12	소맥피	스리랑카	사구회	럭키	5,000	89 ⁹⁰	By 7월	
4.8	채종박	중 공	축협	현대	4,200	114 ⁹⁰	8.16~9.5	
"	"	"	"	"	"	114 ⁹⁰	10.16~11.5	